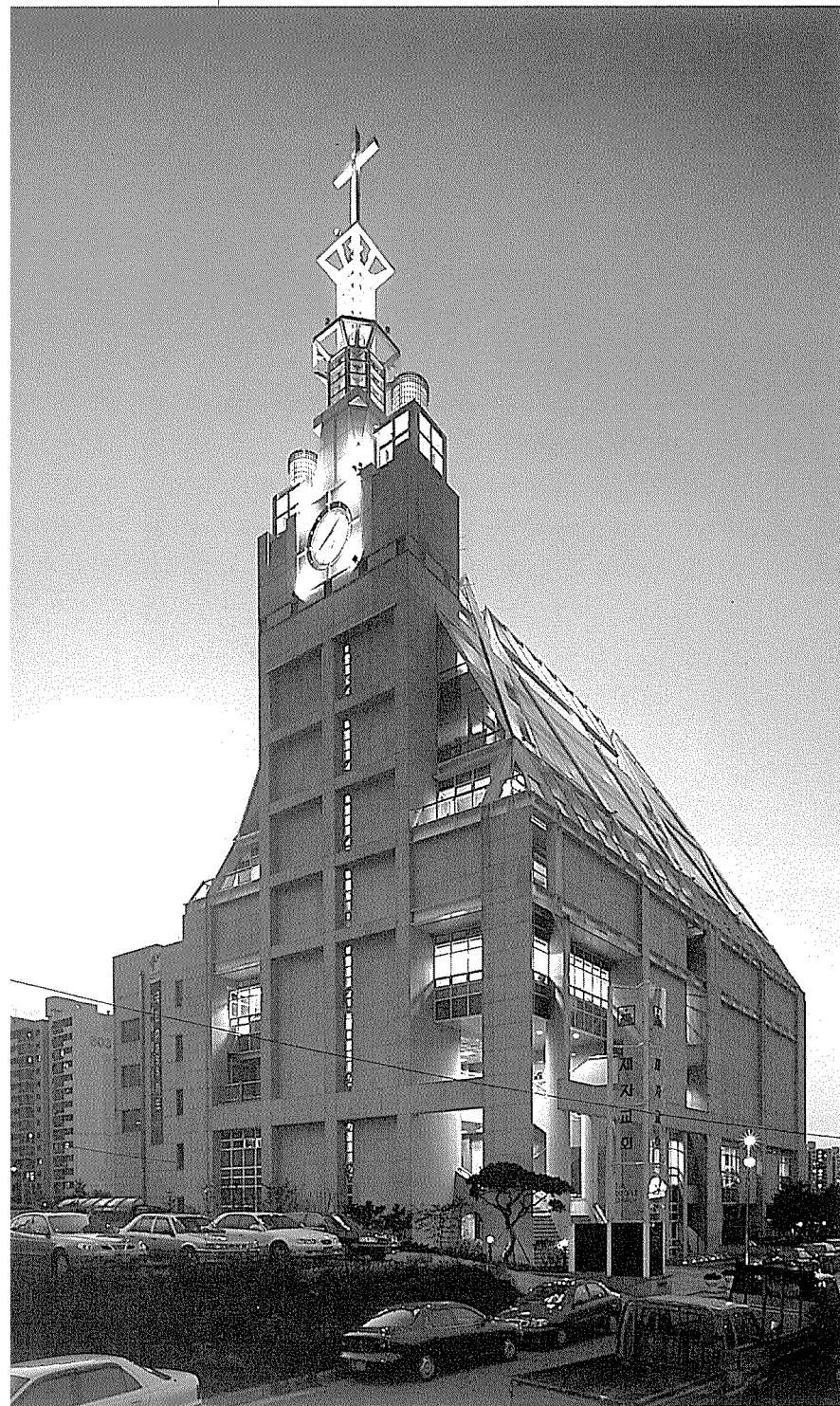


## 제자교회

### Jeja Church

함인선/ (주)인우건축사사무소  
Designed by Hahm In-Sun



이 교회에서는 지상 2~3층에 집회공간, 4~7층에 교육관 등이 배치된다. 구조개념은 집회공간을 삼각주(三脚柱) 형태의 자기완결적 구조의 상부가 덮는 식이다.

이 개념은 예배공간 상부의 구조, 설비층을 공중정원으로 만들어 뚫어냄에 의해 적극적으로 표현된다.

예배공간을 담는 하부의 상자는 적은 Slit을 제외하면 밀폐되어 보행 레벨에서는 폐쇄성을 가지는 반면 유리로 된 상부의 삼각주는 투명하게 보이는 실내와 옥상조경에 의해 인접한 아파트에 대하여 개방적이 된다.

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대 교회건축의 퇴행적 태도에 대한 몇가지 비평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공간의 위계라는 측면에서 이 건물은 '예배장소'와 '기타공간' 간에 그 어떤 위계구조도 가지지 않는다. 예배당은 유치원과 식당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으나 이는 철저히 동선, 공간의 크기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.

둘째, 건물의 형태에서도 전체적인 볼륨이 전통교회를 닮게 된 것은 주변 도로 사선 제한선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를 그대로 살린 것일 뿐 어떤 형태적 전제도 없다. 지붕의 형태가 그 안의 초월적 공간과 천상을 연결하는 상징이 된다는 얘기도 여기서 성립이 안된다. 이 건물의 지붕은 지붕인 동시에 세속공간들의 외벽이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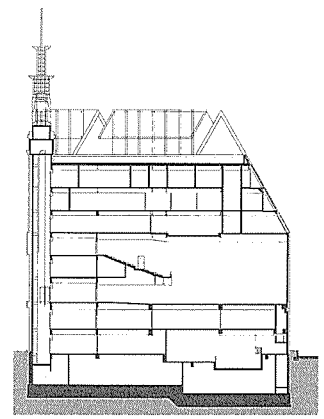
셋째, 이 건물은 전통 교회 건축에서 애용하는 직교축과 이에 따른 선대칭 구도를 가지지 않는다. 이를 채택할 경우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려나와 그것의 경직된 구도가 함의하는 바독점적, 전제적 특성을 극복할 수 없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.

넷째, 재료의 측면에서도 이 건물은 이노베이션을 시도하고 있다. 외부의 철골, 유리, 본당 내부의 나무, 유리, 금속 등의 재료는 '가벼워 보인다'라는 이유로 종교건축에서 기피되는 재료이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채택되었다.

다섯째, 건물의 이용의 측면에서도 이 교회는 열린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. 일층의 전 공간은 커피숍, 서점, 집회홀로 지역사회에 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본당 역시 예배공간이라기 보다는 다목적 공영공간의 시설을 갖추어 지역 문화공간으로 기능한다. 전면 계단에서 3층까지 뚫린 공간은 이 개방성을 강화한다.

**건축개요**

위치	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8-9	용적률	329.24%
지역지구	일반상업, 주차장정비, 도시설계, 1종미관	구조	철골조+철근콘크리트조
대지면적	1,404㎡	규모	지하1층, 지상8층
건축면적	885.40㎡	설비방식	F.C.U
연면적	5,704.94㎡	주요내장	화강석판석, 컬러페인팅
건폐율	63.06%	주요외장	화강석, T=24컬러복층유리



단면도

